



가톨릭 안동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통합 생태적 교회를 향하여

실천사항- 생명의 밥상을 차립시다.

제332호 2025년 5월 11일(다해) 부활 제4주일(성소 주일)



<2017.06.06. >

"나의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요한 15,1)

<안동 가톨릭농민회의 어제와 오늘>: 봉강분회·이천 분회

제1독서 사도행전 13,14.43-52

화답송 © 우리는 주님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손상오 신부 곡



제2독서 요한 묵시록 7,9.14-17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복음 요한 10,27-30

영성체송 착한 목자, 당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네.

당신 양 떼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홍보·전산
오픈카톡

가정은 성소의 토양

사목국 성소·청년 담당
권형배 알베르토 신부



오늘은 부활 제4주일입니다. 매년 부활 제4주일은 요한복음 10장 ‘착한 목자’에 관한 복음을 듣게 되는데요, 교회는 이날을 ‘성소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성소주일은 넓게 보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 되지만, 특별히 이 세상에 신학교와 수도원이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는 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제직과 봉헌 생활에 투신하는 이들과 이를 준비하는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더 많은 일꾼을 보내주시사 청합니다.

현재 우리 교구 사제 성소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올해 한 명이 입학하여, 교구 신학생은 총8명이며, 1학년부터 부제반 가운데 3개 학년은 재학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신학생의 숫자가 많이 줄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성소주일을 맞아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성직자나 수도자들은 대부분 신자 가정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거룩한 평신도 가정이 없이는 수도 성소나 사제 성소가 고갈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출산율이 떨어지고, 종교나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성소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릴 적부터 신앙교육이 필요하고, 특히나 성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에서부터의 신앙교육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말과 행동이 자녀에게 각인되어 습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부모는 자주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범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정 환경에서 자란 자녀들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더 민감하고 기쁘게 응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사제 성소나 수도 성소가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신자 가정이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성소의 싹이 잘 자라는 토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 성소 주일을 지내면서 특별히 학생 자녀를 둔 신자 부모들의 생각이 좀 더 열려있고 각성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열심한 평신도 가정이 1차적인 신학교이자 수도원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한때 주목할 만한 성장을 했습니다. 부모 세대들의 열심한 신앙생활이 있었고, 그 분위기 안에서 사제·수도자 성소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젊은이들이 꾸준히 지속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교구 사제 성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교우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사제들을 위해서, 또 사제직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세상의 성화를 위해 곳곳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수도자들과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 활동하시는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봉강분회·이천분회

표지 사진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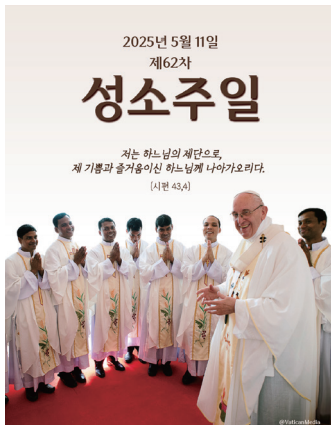
봉강분회는 상주시 외서면 봉강리에 있는 전통적인 벼농사 지역입니다. 1980년대 초부터 친환경 농업을 해 오다 1989년 분회를 결성하였습니다. 회원 수 증가로 2009년부터 이천분회가 분리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친환경 농업을 위한 교육을 함께 받고 실천했으며, 생명농업으로 땅과 사람, 자연을 살리는 가톨릭농민회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분회원들은 가족농, 소농 형태로 주로 자가 노동력으로 농사를 지으며 상주시농민회, 여성농민회(언니네 텃밭), 상주생각(로컬푸드협동조합), 상주의 소리(지역언론), 비아캅파시아(국제소농조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교구 일산성당, 안동교구 계림동성당과 결연을 맺어 풍년기원미사(손모내기), 추수감사미사 등 도농 교류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봉강분회원(8가구) : 이상엽(분회장), 박경숙(총무)·유재묵, 최기수·조민진, 황재순·오덕훈, 남주성·김정열, 황하백·오선진, 유희순, 이영대

*이천분회원(4가구) : 제정이(분회장)·장선유, 오숙녀, 김도균·이현주, 정인제

※ 2025년 「가톨릭안동」 1면에는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실천사항: 생명의 밥상을 차립시다>에 따라 가톨릭 농민회의 주요 사건과 생명 농업의 생산(분회)-판매(우리농 매장)-소비(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다룹니다. <안동가톨릭농민회>에서 제공해 준 사진과 자료를 토대로 목상글을 담습니다.

희망의 순례자: 생명의 선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제62차 성소 주일을 맞이하여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의 삶을 선물로 아낌없이 내어 줌으로써 희망의 순례자가 되어 달라는 격려의 초대와 기쁜 마음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성소는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에 씨를 뿌려 주신 귀

중한 선물이며 자기 밖으로 나가 사랑과 봉사의 여정에 나서라는 부르심입니다. 평신도로, 수품 직무자로, 또는 축성 생활자로 부름받는 교회의 모든 성소는 하느님께서 이 세상과 당신 자녀에게 주시는 희망의 징표입니다.

특정 성소를 받아들이기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의 젊음은 ‘과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지금입니다”(「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178항). 삶을 선물로 내어 주는 데에는 너그럽고 충실한 응답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마다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고(루카 24,32 참조), 우리 삶을 하느님께 봉헌하고자 하는 열망을 느끼게 됩니다. 자연스레 우리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께 그 사랑을 가장 잘 되돌려드릴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찾고자 합니다.

마음속 깊이 깨달은 모든 성소는 자기 과시의 수단이 아니라 희망과 애덕의 표현으로서 사랑하고 봉사하려는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모든 이의 행복을 위한 하느님 계획 안에서 성소와 희망은 하나로 어우러집니다.

하느님 섭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특징으로 하는 희망이 모든 성소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은 저마다의 삶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을 향한 믿음에 기반한 확신으로서 단순히 인간의 낙관적인 마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희망의 순례자, 용기 있게 자기 삶을 그리스도께 바쳐 그분의 제자요 선교사가 되는 기쁨으로 가득 찬 젊은이들이 필요합니다.

성소 여정을 식별하기

우리는 식별 여정의 결과로 우리의 성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식별의 여정은 결코 고독한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벗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에게 서둘러 결정하라고 다그치는 한편 하느님께 열려 있게 하는 침묵의 경

험을 방해하는 줄기찬 소음을 끊임없이 퍼붓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말하는 소리를 경청하고 하느님께 여러분을 위한 하느님 꿈이 무엇인지 여쭙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삶의 특정 상황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듣고 의식적이고도 자유롭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법을 알고자 한다면 기도의 침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 안의 묵상은, 우리가 세상의 주변부에서 살고 있는 이들에게 봉사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선물로 되게 할 때 희망의 순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모든 성소는 빛과 위안이 절실히 필요한 자리 그 어디든 그리스도의 현존이 되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을 확인시켜 줍니다. 특히 평신도들은 사회적 직업적 헌신을 통하여 하느님 나라를 위한 ‘소금과 빛과 누룩’이 되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성소 여정에 동반하기

그러므로 사목자와 성소 지도자, 특히 영성 지도자는 하느님의 ‘교육 방법’을 반영하는 희망과 인내와 신뢰로 젊은이들을 기꺼이 동반하며 존중과 공감으로 경청하고 하느님 현존의 표징을 식별하고자 주의를 기울이는 현명한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인간의 삶과 활동의 다양한 영역에서 성소를 증진하고 저마다 주님 목소리에 영적으로 열려 있도록 돕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합니다.

교회에는 신뢰와 희망을 가지고 주님께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목자, 수도자, 선교사, 부부가 필요하고 그 누구도 혼자서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들의 기도와 지원이 필요하기 때 문입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새로운 성소들을 낳을 때 살아 있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참기쁨의 원천임을 자기 삶으로 선포하는 희망의 증인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계속 부르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추수할 새 일꾼들을 청하십시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저는 주님을 따르려는 여러분의 노력을 교회의 어머니시며 성소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전구에 맡겨 드립니다. 희망의 순례자로 복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십시오! 저의 축복으로 여러분을 동반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로마 제멜리 병원에서
2025년 3월 19일
프란치스코



교구장 동정



5월 13일(화) 참사회의
5월 16일(금) 사목방문
(프린스턴,
피츠버그)(~26)

축하합니다

영명축일

5월 14일(수) 권용오, 황영화 마티아 신부

교 구

5월 열린성경 강좌

일 시: 5. 12(월) 19:30~ 21:30
장 소: 갈전 마티아 본당
준비물: 성경, 필기구, 참가비 5,000원

우곡성지 성모의 날

일 시: 5. 17(토) 10:30
(묵주기도, 미사, 점심 제공)
장 소: 우곡성지 성모동산
준비물: 묵주
문 의: 010-4922-7332
※ 식사 인원 파악 관계로 미리 연락주세요.
※ 꽃 봉헌 환영합니다.

교리교사학교

일 시: 5. 18(주일) 13:40~ 17:50
장 소: 교구청 강당
준비물: 텀블러, 필기도구

수취페 도미네와 함께하는 성모의 밤

일 시: 5. 25(주일) 19:30
장 소: 울진 본당

수취페 도미네와 함께하는 성시간

일 시: 6. 13(금) 20:00
장 소: 예천 본당

제 단 체

행복한 가정과 부부를 위한 제94차 ME주말

일 시: 5. 16(금) 19:00~ 18(주일) 17:00
장 소: 농은 수련원
대 상: 혼인 3년 이상 부부, 비신자, 사제, 수도자
문 의: 010-4147-8036, 010-4153-1229

5월 꾸르실료 월레미사

일 시: 5. 19(월) 20:00
장 소: 봉화 본당
*많은 참석부탁드립니다.

교구 성령 색신 기도회

일 시: 5. 25(주일) 16:00
장 소: 모전동 본당
문 의: 010-2638-4798

수 도 회 · 피 정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성소모임

일 시: 5. 17(토) 14:00
장 소: 개화동 수도원(서울)
문 의: 010-3800-1579

한티 가는 길(도보순례)

일 시: 5. 22(목) ~24(토), 6. 19(목) ~21(토)
9. 11(목) ~13(토), 10. 16(목) ~18(토)
11. 12(목) ~14(토)
첫 날- 11:00 입실, 셋째 날- 17:00 마침
장 소: 왜관수도원 문화영성센터
강 사: 류 에프렘 수사
참가비: 25만원, [iM뱅크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접수 후 입금
문 의: 010-6791-0071(문자)

원어 성경 기초반(히브리어, 헬라어: zoom)

때: 7월부터 12개월(수) 19:30~ 21:30
회 비: 30만원 x 4회 (총 120만원)
문 의: 작은형제회 김성태 신부
(010-4598-6912)

상주 가르멜 여자수도원 성소모임

고독과 침묵 안에서 기도의 사도직에
부름받은, 봉쇄 관상 수도생활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을 초대합니다.
장 소: 상주시 내서면 우서로 80-21
연락처: 010-3502-0507 (08:00~ 17:00)

테마가 있는 성경 강좌

일 시: 매달 넷째주
월요일 19:00



교 육

가톨릭상지대학교

드론조작/항공촬영물 제작 무료 교육

일 정: 5. 18(일), 25(일)/ 6. 15(일), 22(일)
(각 2일 12시간)
시 간: 09:00~ 15:30 (중식제공)
내 용: 드론 조작(기초), 항공촬영물 제작(심화)
대 상: 고용보험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문 의: 가톨릭상지대학교 공동훈련센터
054-851-3136

상담을 통한 인지정서케어 무료 교육

일 정: 5. 31(토), 6. 14(토) (총 2일 10시간)
시 간: 10:00~ 15:30
내 용: 노인 심리의 이해, 노인 상담스킬
향상기법 등
대 상: 고용보험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문 의: 가톨릭상지대학교 공동훈련센터
054-851-3137

사이버성경학교 '희망의 순례자들 희년' 이벤트

대 상: 성경공부를 원하는 이
신 청: 인터넷 검색창 '사이버성경학교'
365일 신청. 전과목 50% 할인,
다양한 무료 콘텐츠
문 의: 031-360-7635/ 010-7470-7966

가흥동성당 성전건립 기금마련 유기농 100% 레몬차즙 판매

한 포에 100%이태리산 유기농 레몬이 하나
가격: 1통 10,000원, 3통부터 한 통당 천원 할인!
주문전화: 010-8962-9600

